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종 윤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과 역사 앞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 눈물로 세운 교회 환희가 넘쳐 —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며, 세계를 교구로 삼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 출발한 서울교회가 벌써 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30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옥녀 권사택에 모인 39명의 여성도들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후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우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동년 10월 6일 주일에 강남구 논현동 현 위치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당일 168명으로 불어난 성도수가 말해 주듯 모인 무리들은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로부터 50일간을 특별 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마침내 동년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을 기해 535세대 1860명을 창립 멤버로 한 서울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의 풍운아처럼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놀라운 성장과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델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사명감과 충성심이 각별한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였다 할 것이다. 내적 성숙을 다짐하기 위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한 회개운동의 일환으로 출애굽 여리고 대행진 24시간 연속기도회와 홍해 작전을 거쳐 가족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영적 각성운동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영적인 힘을 얻은 서울교회는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을 설립하여 2천여명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목회자 갱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도와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김치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종윤 목사
(서울장로교회 담임목사)

교육과 선교 그리고 구제의 세 기둥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92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93년) 책임있는 교회를 이루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몸부림쳐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못다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자신의 무능과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하다.

이제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날의 감사로 흥분만 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리에 섰는지를 겸손히 자문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전진하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을 먼저 청산해야 한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성장해야 하듯 유아기적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 책임있는 신자로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며 은혜와 질서, 사랑과 평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천국의 지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거짓과 부정, 악의 세력과 싸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새정부가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고 신한국 창조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한 신한국 창조나 세계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도전과 용전을 슬기롭게 해야 할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과 모델이 요청되는 지금 우리교회는 받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얽히고 맺힌 문제를 풀고 전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요청된다.

우리는 여기서 서울교회 성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제목을 확인하므로 서울교회를 향한 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케 하고자 한다.

① 성경적 가치관을 정착시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임을 믿게 하옵소서 ② 깨끗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 가정마다 경건의 본을 이루게 하옵시며 ③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국으로 소망을 갖고 감사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④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케 하옵시고 ⑤ 교육 선교 구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세계와 역사 앞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⑥ 비신앙적 비인간적 비성경적인 악은 과감하게 추방하옵소서 ⑦ 우리교회를 통해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의 새 열매

김상철 집사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어 복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과 화락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지 세속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무병장수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에 처하여서 빛이 난다. 역울함을 당하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아와 같게 되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정으로 주를 찾아 모든 것을 의지한다. 즉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시편 50:15).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다 큰 소망을 보여 주시며 한없는 위로를 베푸신다. 화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 그리하여 분노와 원한을 품는 악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

내로 인하여 모함을 당해 옥에 갇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함에도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요셉은 여인의 손에 자기 옷을 두고 나와야만 했으나, 이 우연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역경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동안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처형으로 겪은 고초와 수모를 생각할 때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지 않고서는 사랑을 베풀기는 커녕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가지기 어렵다. 스스로 역울함을 겪어 보지 않으면 남의 역울한 사정을 알아주기 어려우므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의로운 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한국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저지른 것도 없는데 분단의 수난을 당하였다. 남북으로 나뉘어 치열한 체제경쟁을 벌인 후 그 실상이 88년 서울올림픽과 89년 평양축전을 통해 있는 그대로

로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공산주의의 선전을 믿지 않게 되어 그해 가을부터 공산권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분단은 바로 20세기의 최대도전이었던 공산주의 사상의 실상을 인류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서울장로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 바로 고난의 열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수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고난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세계열강들에 의해 수난당해온 한국민족이 이제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대사명을 받은 것으로 믿듯이, 고난의 연단 속에 이룬 새 열매인 서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다.

자랑스런 우리교회

이 윤 재(유년부)

엄마와 손잡고 서울교회 유치부에 다닌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2년이 넘어 나는 유년부 2학년이 되었다. 우리교회는 오늘 2번째 생일이 되는데 2년동안 우리교회는 나처럼 많이 어른이 된 것 같다. 우리교회는 비좁지만 사람이 많고 주일이 되면 예배도 여러번 드리고 교회 앞에서 차도 마시는 등 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좋다.

나는 유년부 찬양대에 있는데 지휘 선생님도 좋고 반주 선생님도 좋다. 나는 오랫동안 찬양대에 있고 싶고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우리교회가 빨리 예쁜 예배당을 짓는 것이다. 나는 주일에 하루종일 교회에 있고 싶는데 어느때는 엄마가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속상하다. 그럴때 나는 우리 교회가 뛰어들 수 있는 딸도 있고 조용히 책을 보는 곳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엄마가 집에 가라고 하시는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한번은 엄마에게 그런말을 했더니 엄마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교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금방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엄마는 내가 벌써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모르셨나 보다.

나는 주일이 기다려진다. 벌써 추수감사절 감사헌금도 저금통장에서

대학부의 고민, 그리고 희망

정 성 국(대학부)

언젠가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대학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 “아직, 서울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서울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서울교회 사람은 되었다”라고 내 자신을 소개한 기억이 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서울교회를 선택했고, 이 교회를 통해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든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다. 교회창립 2주년을 맞은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것은 실로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찾아서 준비했다. 엄마는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다.

나는 우리교회가 자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교회교육도 21세기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한다. 21세기의 원년인 서기 2000년에는 유년부 동생들이 대학부에 진학하게 된다. 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이 교회학교의 본형인 대학부의 또 다른 고민이자 희망이다.

교회창립 2주년! 대학부는 서울교회의 역사를 생각하고, 서울교회의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소원한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

추수 감사절은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620년 영국의 102명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지금의 미국인 신대륙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그해 47명이 목숨을 잃는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 이듬해 첫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 당시 행정관인 브렛포드는 감사절을 제정 공포함으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 더우기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첫 감사절을 기념하여 미국에 공식적으로 “추수 감사의 날”의 공포함으로 더 넓게 확산되었다.

그후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였고, 1914년 미국 국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네째 목요일에 지키기로 확정하였다. 그러다가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새 관례로 11월 세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거처온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적 의미이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상륙하기 전에 “Plymouth Statement”(1620. 11. 20)를 작성했다. 그 문서에 제1 서약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래의 목적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된다.

둘째는 이웃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다. 청교도들은 추수감사를 드릴 때 그 지역의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가졌다.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얻은 종자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마침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디언들의 호의에 감사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1904년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1914년 각 선교부는 미국선교사가 조선에 처음으로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 11월 세째주일후 수요일을 감사절로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11월이 우리나라 추수기와 맞지 않는다하여 10월 세째주에 드리는 교회가 몇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세째주를 감사절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창립과 함께 4째주로 감사절을 지킨다.

뜨거운 가슴으로 도약합시다

김세재 집사

삶의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들라면 첫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생의 반려자를 구하는 것, 그리고 세째는 직업을 택하는 것을 들고 싶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노라면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몫이라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세 가지 외에 또다른 중요한 선택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섬기는 교회의 선택이라고 답할 것이다.

3개월전,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모처럼 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서울교회로 인도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선택이었음에 틀림없다. 짧은 연륜의 교회,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도 불편하다고들 하나 많은 성도들이 개미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땀흘려 봉사하는 모습은 마치 솔로몬시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건축의 역사를 바라보는 듯하여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들은 분명히 가슴에 비전을 담고 있었다. 직분 맡은 분들의 겸손과 성실함, 기쁨으로 굶은 일을 마다 않으시는 권사·집사님들의 숨은 봉사들을 통해 세련되진 않았지

만 초대교회와 같은 정감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당당히 밝히고 있어서 큰 위로와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아직은 조직의 성숙도나 일꾼들의 적재적소 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뺌하고 일할수 있는 형제들이 많이 뒤쳐져 있는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족전체가 합심하여 교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다락방 모임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두살박이 어린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모두가 가슴에 큰 꿈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라. 다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웃을 껴안고 함께 한 꽃대를 향해 도약하는 3차년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한번 서울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2주년에 부쳐

추수 감사절과 더불어 서울교회는 창립 2주년을 맞았다. 여느 개척 교회의 2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을 해온 2년이였다. 오랜 역사와 엄청난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회갱신의 사역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과 신선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치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가 그랬고 홍해작전과 비전 2000운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 물론 교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모

든 좋은일이 각고의 결실이 있듯 두살박이 서울교회가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눈물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복음을 유감없이 쏟아낸 진리의 강단이 있었기 때문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임있는 교회로서 긍지를 갖되 자만하지말고 하나님의 거울에 자신을 비취보아 잘못되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완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창립 2주년을 맞아 서울가족은 94년을 바라보며 더욱 분발해야 한다.

첫째, 말없는 헌신을 하자.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헌신을 많이 할수록 목소리는 낮아져야 하고 뒤로 숨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바로 설 것이다. 둘째로 침묵하는 성도들은 숨은 달란트를 발굴하고 헌신하자. 셋째로 새벽기도와 성경 읽기에 더욱 힘을 쏟자. 네째는 행여나 손실과 낭비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찾아서 막아야 한다. 귀한 헌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온 우리들은 창립 3주년에는 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더욱 웃기를 여며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본 서울교회



◀ '93 신년예배
(아침해가 들을 때...)

▶ 부활절 예배 성찬식

▶ 기뻐다
구주오셨네



▶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 제1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 러시아 장교들과 자매들이 웬 방문입니까

돌

이 시대 교회 갱신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가족 여름수련회



▲ 제1회 교사체육대회 열리다

▼ 차량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교사체육대회

비전 2000운동의 결실을 두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봉사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밖에서 본 서울교회

한국교회발전에 공헌한 교회

정진경 목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서울교회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짧은 시일 안에 교회 자체의 내적인 발전 뿐 아니라 아시아 동구라파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으로 부터 많은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교회간의 국제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온 교인들의 단결된 헌신과 봉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연중 계속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자질향상과 영성 훈련에 새로운 활력을 정립함으로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을 치하합니다.

이제 서울교회는 과거의 불들어 매는 온갖 쇠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계속 전진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

이종성 박사(한국기독교 학술원 원장)

청천벽력이라는 말과 같이 저 웅장한 고딕식빌딩이 통채로 진동하다싶이 한 사건이 터지더니 그 교회 못지 않은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되었다. 굳이 탄생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사실후에 세워진 서울장로교회가 심상치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큰 어미소가 큰 송아지를 낳듯이 큰 믿음을 가진 이들이 큰 교회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2년동안 서울장로교회가 크게 성장했음을 축하한다. 받은 충격을 쉽게 소화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을 중심하여 온 교인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서울장로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풍성하게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

이미 역사속에 알려진 훌륭한 교회

민경배 교수(연세대학교 교수)

서울교회는 그 역사 일면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훌륭한 교회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다들 어려운 결심을 하고 함께 뭉쳐진 교회인지라 교인들간에 결속감이나 소명 의식이 훨씬 심대하였음이라 본다. 더구나 창립 이래 자람이 급선무였을 터인데도 교회 본연의 자세를 찾아 선교와 신학훈련 등의 수행으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 이종운 목사님의 목회와 그 지도 및 비전이 큰 힘이 되어 있지만 그 교인들의 알찬 동역이 아니고서는 그런 눈부신 성장을 이루기가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 성장과 구조의 한 모델로 서울교회는 길이 기념됨으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

박철훈 장로(건축위원장)

서울교회는 종착역입니다. 우리에게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가면서 지상에서의 우리가 머물러야 할 마지막 교회는 어디어야 하는가 물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2년전 우리 모두는 광야 길을 헤메면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울부짖었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이름을 서울교회라 지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신앙고백을 담았고, 시간과 물질, 열심과 애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창립 2주년이 된 지금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교회로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고 오늘 그 감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바쁘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교육과 구제, 선교의 세기들을 세우고 김치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흥해작전, 전교인 수련회, 비전 2000운동 등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을 자랑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만 할 것이 아니고 앞에 놓인 경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말입니다. “내가 선택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7-8)

안에서 본 서울교회

은혜와 감사

백영희 권사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땅위에 새롭게 서울교회가 세워졌던 그날이 벌써 2주년을 맞는다. 예배당을 물색하여 예배처소를 꾸며 시작했던 그날을 돌이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이뤄졌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서울교회에 내려주심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도록 감사한 마음뿐이다.

잠시나마 방황했고 갈 곳 없던 우리에게 서울교회를 예비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부흥케 하셨으니 2주년을 맞는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밖에 없다.

94년도에는 17분의 장로님으로 채워주시고 8분의 교역자님을 허락하시고, 어디 그뿐인가 30명도 채 안되었던 찬양대원이 지금은 6개의 찬양대가 되었고 각부 교회학교와 12개의 교구를 주심은 또 왜 은혜인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 서울교회에도 내려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2년동안에 걸쳐 목회자 세미나도 마치게 하였고 매년 김치세미나를 감당케 하심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또한 서울교회는 세계를 향하고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교회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7인 장로 안수식

오늘 찬양예배시에



이남호



김대호



나희주



윤봉준



최종시



이영렬



홍정호

우리교회는 창립 2주년을 기해 장로 7인의 안수식을 갖게 된다. 이 남호 김대호 나희주 윤봉준 최종시 이영렬 집사의 안수식과 홍정호장로의 취임식으로 우리교회 당회는 목사 7명, 장로 17명으로 구성된 24명의 회원을 갖게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위임목사 부목사 장로로 조직되며 우리교회는 지난해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측)에 조직교회로 영입된바 있다.

비전 2000운동 승전보고대회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 비전 2000운동 승전보고대회가 있었다.

이 날까지 온 교회는 50일 동안 기도와 전도에 힘을 모았는데, 전도상은 1등에 송석인 성도(15명), 2등 이영숙 권사(10명), 3등에는 김선미 권사(7명)가 받았으며, 이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연말 당회 갖기로

우리교회 당회원들은 93년도를 점검하고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를 위한 연말당회를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12월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양일간 갖게된다.

오늘 저녁 안수를 받게될 7명의 신임 장로들이 처음으로 당회에 참석케 되어 선배장로들의 환영회를 겸한 이번 당회는 94년을 맞으며 발전적이고 영적분위기가 고조된 교회모습을 나타내 줄 것으로 사뭇 기대가 크다.

한국기독교 상담문화 연구소 개설

—심상권 목사 원장취임—

한국 기독교 상담문화 연구소가 11월 29일(월) 오후 5시 강남구 신사동 연구소에서 개원식을 갖게 된다. 기독교 상담과 상담기술을 기초로 상담심리연구원들이 연합하여 한국기독교 상담문화 정책과 발전에 기여코자 개원케 되는 본 연구소의 원장엔 우리교회 협동목사인 심상권 박사가 맡게된다.

추수감사절에 성찬예식거행

—오늘 I, II, III 부 예배시—

우리교회는 93년도 추수감사절 및 성례식을 오늘 I, II, III 부 예배를 통해 지키게 된다. 한 해동안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뿐 아니라,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될 것이다.



창립 2주년기념 음악예배를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

순례자 발간 두 돌된다.

—새 편집자로 이영기 장로 임명—

서울교회의 얼굴이요 거울이며 민족교회의 나침반이며 등불이 되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출발한 순례자가 벌써 두 돌을 맞이하였다.

지난 2년간 성도들을 함께 묶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과 복음을 확산키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러움을 금할길 없으나 순례자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독자여러분이 있기에 새로운 편집 진영으로 새 출발의 각오를 갖고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

당회는 두돌을 맞는 순례자의 새 편집진영을 임명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온 교회가 기도와 정신적 후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94년도 순례자 편집진은 다음과 같다.

- 지도: 장용휘 • 편집인: 이영기
- 편집위원: 오정수, 김세재, 정동호, 서성호
황낙효, 송인숙, 박은경

순례자칼럼

감사 감사 감사

노문환 장로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한일을 생각하면 늘 후회스럽고 아쉬운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좀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안타까워 하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고 우리의 말과 글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행사이시요 전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서울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큰 감사와 감격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밖에 없다. 다시 돌이켜 보고 싶지 않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당하여 우리 얼마나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던가? 그래도 그 울분과 허탈감을 달랠 길이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아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Vision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오! 주님,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딪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성장을 위한 고통으로 받아 들이며 한국교회 갱신의 기치를 높이든 목회자세미나와 세계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김치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진리와 사랑의 터전위에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세기들을 든든히 세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결코 그 일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지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제 추수감사절과 교회창립 2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갖는 이 큰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유지하여 94년 추수감사절과 교회창립 3주년때에는 더 큰 감사와 감격을 우리 주님께 돌려 드리자.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청년 바자회 수익금
—전액 건축 헌금으로 바쳐—

청년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지난 12일~13일 양일간 재학생 품 사용을 위한 「모음과 나눔」의 바자회를 열어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받은바 있다.

청년부는 임원회의(회장: 이성철) 결의를 거쳐 수입총액 8,071,500원중 준비금을 제외한 4,140,000원을 우리교회 새 성전을 위한 건축헌금으로 바쳤다.

권사회 총회 소집
—최난수 권사 새 회장으로—

우리교회 권사회(회장: 장예회)는 오는 12월 1일 수요일 Ⅱ부 예배후 권사회 총회 및 철야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한편 당회는 94년도 권사회 회장으로 최난수 권사를 부회장으로 노영숙 권사,

방계운 권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지금까지 권사회를 이끌던 장예회 권사는 이옥녀 권사, 이신일 권사와 함께 권사회고문으로 추대된다.

사랑부에
25인승 버스 기증

우리교회 사랑부(부장: 윤봉준)는 교사들의 헌신적 봉사로 홀어린 장애인들을 수송해 왔으나 이번에 익명의 성도가 25인승 버스 한 대를 기증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다.

학생수의 증가로 젊고 희생할 수 있는 복음 사역자들이 교사로 많이 참여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윤봉준 부장의 간곡한 부탁의 말은 사랑부를 아끼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서울 강남노회 임원 내교

서울 강남노회 임원 5명이 노회장 신인현목사와 함께 지난 24일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창립 2주년을 축하하고 우리교회 당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노회장 신목사는 서울교회가 창립과 더불어 이종운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을 근거로 이 목사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위임패를 전달하였다.

개원식(11월 29일)에서 이종운 목사가 설교한다.

*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지령 100호 기념 예배(11월 30일)에서 이종운 목사가 설교한다.



* 한국기독교 상임문화 연구소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2.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3. 7인의 새장로를 믿음과 겸손, 그리고 순종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